

01 교회소식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전자책 관련 소식과 해외 인사들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미망하 이루어져 할 시명이요 신앙의 종국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03 사랑의 메시지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전,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희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04 간증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창희 집사와 에이즈 보균자로 태어난 아들이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된 인도 아킬레스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914호 2020년 2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재록 목사 저서, 58개 언어로 전자책 발간

아마존 등 국내외 인터넷서점 통해 활발히 보급돼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등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가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전 세계에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이 목사의 저서는 총 62개 언어 639종 (한국어 112종, 외국어 527종)이 종이책으로 발간됐으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 아랍어, 히브리어 등 총 58개 언어 557종이 전자책으로 번역 발간되었다.

최근에는 전자책 『비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가 체코어와 에스토니아어로 발간되고, 『깨어라 이스라엘』이 루마니아어로 발간된 데 이어 『하나님의 법도』가 루간다어와 체코

어로,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이 이탈리아어로 발간되었다.

이 목사의 전자책은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iBookstore, 구글북스를 비롯하여 교보문고, 리디북스, 인터파크 등 국내 인터넷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독자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신앙 서적에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풀이 받은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 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이 성장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2020년, 축복 많이 받으세요! 만민을 응원합니다!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 회장)

저와 저희 가족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민중앙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통해 제 아내 보제나 사모의 허리와 골반의 문제가,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로 제 며느리 사라의 유방암이 치료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며, 저희의 사랑을 전합니다.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 총회장)

2020년 새해를 맞아 문안 인사드립니다. 만민이 겪고 있는 연단의 과정에 대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과 충성으로 이겨 나가는 만민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은 마침내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는 만민의 비전과 함께하며 더욱 열심히 사역해 나갈 것입니다.

**마크 바잘레프 목사 (미국 월드성결센터)**

새해를 맞아 미국 월드성결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재록 박사님과 성결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믿습니다. 또한 이재록 박사님의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만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라 코조야너 목사**

(아르메니아 크리스챤 패밀리센터 교회)

친애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만민의 귀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권능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만민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2020년에는 어려움을 이기고 많은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원수 마귀의 주관 아래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세를 다시 찾아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곧 성결이 유일한 길입니다. 즉 영계에서는 성결이 곧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회복하여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결된 만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육의 한계를 넘어 영계를 뚫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을 이뤄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결을 이루라 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요, 첫 사람 아담이 타락

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성결로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성결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악에서 돌아켜 회개하도록 만드셨지요.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직접 보고 따를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 주심으로 믿는 이들이 더욱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친히 말씀을 지켜 행하신으로 범사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생명 다해 사랑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몸소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였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버리

는 것에도 앞서 본을 보여 주었지요.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갔지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넘쳐남으로 정과 욕심을 끊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열심히 죄를 싸워 버리고 진리를 행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를 본받아 성결을 이루며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가시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그 품에 안겨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중심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너무나 바라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것을 기뻐하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태초 이전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 자신도 배신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패역한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 당하도록 내어 주셨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영혼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며
섬세한 보살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일서 4:19)

– 이재록 목사 설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중에서 –



